

공감적 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화법 교육 방안

- '대화 함축' 교육을 중심으로 -

김윤정* · 권순희** (이화여대)

〈목 차〉

- | | |
|---------------------------|------------------------------|
| 1. 서론 | 4. 공감적 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화법 교육 설계 |
| 2. 화법 교육에 대한 관점 | |
| 3. 화법 교육에서의 '대화 함축' 적용 양상 | 5. 결론 |

1. 서론

최근 들어 가정, 학교, 군대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일어난 비도덕적인 사건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여러 병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보자면 '바람직한 인성 교육 및 소통의 부재'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올바른 인성 교육의 시작은 바로 올바른 사고와 언어에 대한 교육이다. 바른 가치관을 담아 진실 되게 말하는 언어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국어교육, 특히 화법 분야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법 교육에서는 올바른 언어와 소통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

* 제1저자

** 교신저자

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최근 들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인성·소통·삶의 가치관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인성교육을 강화했는데 조재운(2014)의 논의처럼 2011 교육과정에 비해 듣기·말하기 영역에서 고운 말, 바른 말 사용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바른 화법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 참여의식 강조에 대한 내용 등이 수정 보완되었다.

김창원(2014)의 논의처럼 국어과 교육과정은 기존 학문·교과·지식 중심의 교육과정과 경험·생활·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사이의 길항 위에 발전해 왔는데, 최근 들어 ‘역량’이라는 제2의 관점이 대두되었다. 여기서 역량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이나 직업적 능력에 한정되지 않고 삶의 총체적 수행과 관련된 역량을 의미한다. 학교가 아니면 결코 배우고 익힐 수 없는 내용, 학교에서 의도적 조직적으로 가르칠 수 있으며 이를 학습자의 삶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내용,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제도적 환경 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 조직하는 실제적인 교육과정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역량’이라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을 스스로 개척하여 공동체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함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 안에 타인 혹은 사회와의 올바른 ‘소통’에 대한 교육도 함의하고 있다.

국어과 화법교육에서는 ‘올바른 소통’의 방식 즉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상대의 의도를 잘 알아차려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감적 의사소통 방식’이다. 공감적 의사소통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발화 행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 능력이 필요하다.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 학습자에게 소통에서의 의미를 탐구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상호작용하게 한다.

바바라 A. 바우어 저, 박찬규 역(2012)에서는 언어 학습자, 의미 탐구, 정체성은 상상 공동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예로 미국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제2언어 교실의 학습자를 들고 있다. 미국인 학습자는 프랑스어를 배움으로서 프랑스어 화자 공동체를 상상하게 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상상은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지만 덜

바람직하고 낮은 수준의 상상은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떨어뜨린다. 바람직한 상상을 통해 학습동기를 높여가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마음속에 그리는 바람직한 소통 방식을 찾아가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화법 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량 중 하나를 ‘공감적 소통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상상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준다. 상대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뜻을 파악 하면서 공감적으로 소통하는 ‘대화 함축’에 대한 화용론적 이해와 적용은 바람직한 상상 공동체, 언어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대화 함축은 공감적 소통에 있어서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화행론적 개념인데 의도적으로 협력의 원리를 깨뜨림으로써 청자가 함축된 의미를 추론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우리 일상 대화 상황에서 매우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대화 함축은 결정된 의미나 보편적 성향을 갖지 않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특정한 상황과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진 배경 지식과 같은 문맥에 의존하는 추론의 과정이다(권순희 외, 2014: 159). 때문에 대화 함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자 청자의 관계, 대화의 상황 맥락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제하에서 상대에 대해 이해하고 상대가 말하는 의미를 깨닫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공감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화 함축은 그냥 저절로 알 수도 있는 부분 이외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유로 국어, 화법 교과서에 대화 함축과 연계된 말하기·듣기 교육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화 함축은 누구나 다 눈치로 알 수 있는 부분이며 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교육의 논의에서 다소 제외되고 있는 현황이다.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공감적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실용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화 함축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교육과정 분석 및 교사 인터뷰를 통해 대화 함축을 중심으로 한 화용론적 양상이 화법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바람직한 상상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공감적 소통을 대화 함축

방식에 적용하여 화법 교육에서 실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방향성과 지도 방안을 제시한다.

2. 화법 교육에 대한 관점

2.1. 공감적 소통과 화법 교육

‘공감’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내릴 수 있지만, 정상섭(2006)의 논의에서처럼 ‘공감’은 크게 인지적, 정의적, 의사소통 관점으로 정리하여 분류할 수 있다. 피아제(Piaget)¹⁾ 등 인지론자들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인지적 관점은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 상황을 정확하게 하는 정도로 공감을 정의하고 있다. 정의적 관점은 부정적 경험을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동정, 관심, 연민의 정서까지도 포함하는 타인의 경험 상태에 대한 대리 경험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적 관점은 공감을 이해현상만이 아닌 관계양식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데 타인에 대해 감식한 바를 탐색 기술하고 이에 대해 의사소통 하는 능력이라고 보고 있다. 즉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과 심리 상태, 경험을 마치 나의 것처럼 경험해 보는 공감적 정서(empathic emotions)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정서적 상태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적인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적 경험을 매순간 함께 느끼고 아는 능력에 기초를 두는 정신 내적 성격이다. 공감은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 상황에서 일어나며 그 관계 속에 있다.

‘공감적 의사소통’은 대화 상대자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잘 알아차리면서 숨은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상대의 반응이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타인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언어의 진실성과 상대에 대한 배려를 담고

1) 피아제(Piaget, 1934)는 아동의 미성숙을 자아 중심성(egocentrism)과 관점수용(perspective-taking)능력 부족으로 설명하고 자아중심성이 극복되고 탈중심화가 이루어질 때 타인들의 상이한 관점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정상섭, 2006a; 354 재인용).

있는 관계지향적인 화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감적 화법에 대한 연구로는 상호 교섭적 관점에서의 화법 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임칠성(1997), 공감적 듣기 현상을 우리말의 전통과 동양 사상의 측면에서 분석한 김상대(1978), 공감적 화법의 내용과 방법에 시사점을 준 서혁(2000), 청자 지향적 표현 원리를 제시하며 공감적 화법의 연구에 시사점을 준 권순희(2001), 상생화용의 화법을 제시한 최현섭(2004), 인간관계 영역으로 화법 교육의 영역을 확장시킨 이창덕(201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공감적 의사소통은 그 중요성에 비해 화법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경시²⁾되었으나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소통을 통해 협력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공감적 소통 능력’은 다양한 의미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심리학에 한정되어 연구, 교육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화법 교육에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르칠 의무가 있다.

2.2.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화법 교육

국어학과 관련한 화행이론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주로 영문과나 프랑스학과 등 외국어 전공학과에서 대화 함축의 의미 자체에 대한 연구³⁾가 이루어졌으며 대화 함축과 관련성 이론에 대한 연구⁴⁾는 2000년대 초기까지 많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영어나 중국어 관련 문법에 대한 논문이 대다수이고 국어의 화용론에 입각하여 대화 함축의 원리와 본질을 다룬 김경학(1983), 이현호(1998), 임천택(2003), 김태자(1989, 2010)의 연구 이외에는 국어학적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 2000년대 이후 대화 함축을 활용하여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등장했는데 김민정(2009), 서미옥(2013), 이경화(2013), 임은설(2014)은 대화 함축의 개념을 확장, 적용하여 다

2) 정상섭(2006)에 의하면 첫째, 화법 이론이 수사적 관점이나 인지심리학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대화 내용의 정확하고 비판적인 이해만을 강조했기 때문이고 둘째, 공감적 듣기·말하기가 상담과 심리학 영역에 있어야 한다는 다소 그릇된 오해 때문이다.

3) 대표적인 연구로는 심윤희(1998), 권영문(1991), 고광윤(1991), 임광례(1992), 조현숙(1999), 이현진(2000), 김보라(2001), 성경숙(2003), 김유진(2005), 여효진(2010)이 있다.

4) 심윤희(1987), 윤경아(1993), 홍진옥(1996), 조정규(1997), 김현주(2001)의 논의가 있다.

양한 방식으로 텍스트나 담화를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부터 화용론과 담화·텍스트 언어학의 연구로 인해 국어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국어 교육에 접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언어와 의미가 실제의 의사소통 맥락과 어떤 영향 관계에 있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언어 사용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 교육의 기초 작업이기 때문이다(임천택, 2003: 98).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임천택(2003)의 연구는 실제 언어 사용 맥락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제(presupposition)에 대하여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따져 보면서 전제를 활용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국어 교육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김태자(2002)는 함축을 발화에 사용되는 단어들의 관계적인 자질들로 인해서만 나타나는 ‘관계적 함축’과 부분이나 함의가 아닌 내용으로서의 맥락 가운데서 그 문장의 발화에 의해 암시되는 ‘대화적 함축’으로 구분하면서 대화 함축의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교과서의 대화 함축을 분석하는 틀이나 분석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성석(2013)은 관계 중심적 대화를 유형별로 접근하여 실질 대화에 나타난 함축의 양상 및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앞선 연구들은 화행론의 각 이론을 통해 담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직접 현행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분석하여 국어 교육에 실질적인 교육 방식을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화법 교육의 흐름에 있어서도 화행론적 이론이 바탕이 된 연구는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그 양상을 화법 교육의 방식으로 접목시킨 연구는 미미하다.

‘대화 함축’의 경우 공감적 소통의 본질적 의미와 목표에 부합하는 부분들이 많으나 아직 직접적인 교육 방식으로서의 적용 양상 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본 연구는 학교 교육의 장에서 ‘대화 함축’에 관련된 화법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 현황을 살피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고, 일선 교사들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감적 소통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화법 교육의 일환으로 대화함축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는 화법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화법 교육에서의 ‘대화 함축’ 적용 양상

함축(implicature)이란 추론에 의해 얻어진 의미로, ‘주어진 말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청자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포된 의미’⁵⁾, 또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화자가 문장으로 실제 발화한 것은 아니지만 발화 속에 암시되어 있는 명제’⁶⁾를 뜻한다. 화자는 발화 문장의 명시적인 의미 이상의 다른 의미를 그 발화 속에 넣어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때 직접적으로 전달된 것 이상으로 추가된 의미가 바로 함축이다.

그라이스(Grice)의 관점에서 함축은 고정함축 (convention implicature)⁷⁾, 대화함축 (conversational implicature)⁸⁾, 등급함축과 절함축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부분은 ‘대화 함축’으로 청자가 함축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특별한 맥락이나 배경 지식 등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대화 함축과 청자가 특별한 맥락이나 배경지식을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특정 대화 함축을 모두 포함한다.

정리하자면 대화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은 그라이스(Grice)에 의해 창안된 개념으로, ‘발화 상황에서 화자가 드러내지 않았으나 청자가 화자가 대화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서 추론하는 의미’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협력의 원리가 준수되지 않을 때는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화자가 의도적으로 협력의 원리를 깨뜨림으로써 청자가 함축된 의미를 추론하도록 이끄는 경우를 대화 함축이라고 한다. 이 경우 청자는 화

5) 박영순(2007: 246)

6) 윤평현(2008: 391, 393)

7) 첫 번째 문장에 쓰인 특정한 어휘나 구문이 갖는 고정적인 의미 때문에 얻어지는 함축으로 ‘-도’라는 특정 어휘 요소, ‘그러나(but)’와 같은 것들이 고정함축을 유발한다.

8) 특정 어휘나 표현에 의존하지 않고 대화의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함축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뿐 아니라 그들이 지킬 것으로 생각되는 대화에서의 일반적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대화적 함축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의미관계를 논리형식이나 언어의 미에 의해 추론하는 함의(entailment)가 아닌, 명제로서 맥락 가운데 그 문장의 발화에 의해 암시되는 함축관계로서, 그 중 발화에 사용되는 단어들의 관계적인 자질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관계적 함축이 아닌 대화상의 함축 관계이다(김태자, 1989: 136).

9) 등급 함축은 화자가 등급(scale)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함축(전부, 약간, 항상, 뜨겁다, 뜨겁하다, 차갑다, 쌀쌀하다, 확실하다, 가능하다 등)이며 절함축(clausal implicature)은 복합문 속의 내포문 즉 절의 명제 내용에 대한 함축문이다(윤평현, 2013: 362-365).

자의 발화에 협력의 원리가 준수되고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며, 화자 역시 청자가 그러한 고의성을 추론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⁰⁾

그라이스(Grice)의 대화 함축 이론의 대전제는 대화는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주어진 규칙을 준수한다는 협력 원리(cooperative principle)이다. 협력 원리는 원만한 대화를 위한 일반 원리와 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화 격률로 정리 된다¹¹⁾.

대화는 협력 원리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화자가 대화 격률을 준수하거나 역으로 준수하지 않을 때 함축이 생성될 수 있는데, 특히 대화 격률을 준수하는 경우를 표준 함축이라 한다. 이러한 함축 생성의 기제는 대화에 참여한 화자와 청자가 모두 발화에 충실하게 참가하고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과잉되거나 부족한 정보에 대해 이를 수용하여 발화 의미를 추론하고자 하는 노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0) 임지룡(2010: 353)

11)

협력 원리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요구되는 만큼 대화에 이바지하게 하라.	
대화 격률	
양의 격률	<input type="checkbox"/> 대화의 목적에서 현재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 <input type="checkbox"/>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질의 격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당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참된 것이 되도록 하라. <input type="checkbox"/>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관계의 격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련성이 있게 하라.
태도의 격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라. <input type="checkbox"/> 불명료한 표현을 피하라. <input type="checkbox"/> 중의성을 피하라. <input type="checkbox"/> 간결하게 하라. <input type="checkbox"/> 순서에 맞게 하라.

3.1.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현행 화법교육에서 대화 함축과 관련한 교육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1) 교육과정 분석

① 내용 체계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대화함축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역별 내용 체계와 화법(듣기·말하기) 영역의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교육과정 내용 체계 내에서 대화 함축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지식’ 영역의 ‘듣기·말하기의 본질과 특성, 맥락’, ‘기능’ 영역의 ‘상황 이해와 내용 구성, 표현과 전달, 추론과 평가, 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태도’ 영역의 ‘공감과 배려, 듣기·말하기의 윤리’로 볼 수 있다. 즉 내용체계 내의 대부분의 내용이 대화함축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발화행위에서 대화 함축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전제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면서도 특정한 교육 내용으로 초점화 되어 구현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 • 다양한 목적의 듣기·말하기 - 정보를 전달하는 말 - 설득하는 말 - 친교 및 정서 표현의 말 • 듣기·말하기와 매체		
지식	기능	태도
• 듣기·말하기의 본질과 특성 • 듣기·말하기의 유형 • 듣기·말하기와 맥락	• 상황 이해와 내용 구성 • 표현과 전달 • 추론과 평가 • 상호 작용과 관계 형성 • 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 가치와 중요성 • 동기와 흥미 • 공감과 배려 • 듣기·말하기의 윤리

[그림 1] 2012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듣기·말하기 영역의 내용체계

② 학년군별 영역 성취 기준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년군별 화법 영역 성취기준 중 대화함축과 연계 될 수 있는 부분은 각 학년군 별로 제시되어 있다.¹²⁾ 이 중 중등 화법(말하기·듣기) 교육에 해당하는 영역 성취 기준과 대화 함축과 관련된 내용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 1-3 학년 군】

▶ 영역 성취 기준 : 개인적, 공식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듣기, 말하기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상황에 대한 종합적 안목을 바탕으로 적절한 언어 예절을 갖추어 듣기, 말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내용 성취 기준

- 1) 듣기와 말하기의 소통과정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듣기와 말하기 계획을 세운다.
- 7)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말한다. (실제 대화, 온라인 대화, 작품 속 상황 등)
- 8) 목적과 상대에 따라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며 대화를 나눈다.
- 10) 화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안다. (개인의 공식 화법,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 등)
- 13) 전통적 듣기, 말하기 문화를 이해하고 오늘날의 듣기, 말하기 문화를 성찰한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위와 같이 일상적인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는 점에 중점을 맞추어서 대화 행위와 함축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학 작품이나 온라인 대화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대화 함축의 의미를 학생들이 찾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12) 1~2학년군 : 일상생활이나 학습 상황에서 바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귀 기울여 듣고 말하며, 고운 말, 바른말을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3~4학년군 : 일상생활이나 공식적인 듣기·말하기 상황에서 정확하게 듣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표현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소통한다.

5~6학년군 : 공식적인 소통 상황에서 듣기·말하기의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언어예절을 갖추고 다양한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중1~3학년군 : 개인적, 공식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듣기·말하기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상황에 대한 종합적 안목을 바탕으로 듣기·말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중 화법]

▶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

(1)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의 원리

_진솔한 마음이 드러나도록 표현 (언행일치 태도, 진실과 신뢰의 가치 이해)
_갈등을 유발하는 상호 작용의 장애요인 점검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함.

(2)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화법

_대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를 인식하고 관계 형성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함.
_면접 답변 전략 이해,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듣고 효과적으로 답변하기

▶ 성취기준

[화법Ⅱ-(1)-가-①] 대화의 목적, 대상, 상황 등에 따른 대화의 원리를 이해한다.

[화법Ⅱ-(1)-가-②] 상대의 감정이나 의견에 공감하며 대화한다.

[화법Ⅱ-(1)-가-③] 다양한 소통 맥락을 고려하여 대화한다.

[화법Ⅱ-(1)-가-④] 유머와 제담 등을 활용하여 대화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대화의 맥락 속에서 대화 함축을 찾아내는 활동을 넘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대인관계 의사소통에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의도적, 비의도적 대화 함축이 어떤 식으로 상대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발화행위에 대해 예측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연성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성취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대화 함축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화자와 청자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학년군별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내용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화행에서 대화 함축을 의도에 따라 시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화 함축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는 어렵고 대화 함축 발생의 가능성을 전제하여 화자와 청자의 태도 측면에서 협력원리와 대화 격률을 고려한 간접적인 내용 구성의 경향을 볼 수 있다.

2) 교과서 분석

①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 2012개정 교육과정의 적용된 중학교 국어 교과서 1~3학년(1권~6권) 각 16종 총 48권
- 2007개정, 2009개정 고등학교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총 4종

교과서 활동 중 대화 함축과 관련이 있는 활동 내용을 분석하고 교사용 지도서의 지도 방안과 연계하여 특징 및 시사점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현직 국어교사들에게 해당 활동들을 제시하면서 공감적 소통을 위한 화법 교육에 있어서 수업 자료로서의 교육의 타당성 및 실용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다.

② 교과서 분석 결과

분석한 교과서 중 대화 함축 관련한 활동이 제시된 것은 중학교 총 10종, 고등학교 총 2종으로 주로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집중되어 있다.

〈표 1〉 대화 함축 관련 활동이 실린 교과서 비율

	중 1	중2	중3	고등학교
대화함축 관련 활동 제시	6종/16종	0종/16종	4종/16종	2종/4종
비율	37.5%	0%	25%	50%

〈표 2〉 대화 함축이 들어 있는 교과서 활동

자료 번호	학년	출판사 및 단원명
1	중1	미래엔(윤) 4 갈등과 대화 (2) 괜찮아 (p164)
2	중1	교학사(남) 1 새로운 만남 (2) 소통의 방법 대화의 필요성 (p49)
3	중1	신사고(민) 1 마음을 나누는 삶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p24)
4	중1	천재(노) 5 더불어 살아가기 (2) 마음을 나누는 대화 : 활동 1 (p224)
5	중1	천재(노) 5 더불어 살아가기 (2) 마음을 나누는 대화 : 활동 2 (p225)
6	중1	천재(박) 4 공부의 원리 (2) 효율적인 의사소통 (p193)
7	중1	천재(박) 4 공부의 원리 (2) 효율적인 의사소통 (p196)

8	중1	창비(이) 2 말과 글로 세상과 소통하기 (1) 마음과 말이 통하는 세상 (p77)
9	중3	비상교육(김) 5 말살이 돌아보기 (1) 담화 상황에 맞는 말 (p211)
10	중3	비상교육(김) 5 말살이 돌아보기 (1) 담화 상황에 맞는 말 (p213)
11	중3	교학사(남) 3. 말 속의 세상 (2) 말하기의 지혜 (p150)
12	중3	교학사(남) 3. 말 속의 세상 (2) 말하기의 지혜 (p152)
13	중3	교학사(남) 3. 말 속의 세상 (2) 말하기의 지혜 (p154)
14	중3	비상(한) 2 언어문화의 어제와 오늘 (2) 헛기침으로 백 마디 말을 한다. (p66)
15	중3	비상(한) 2 언어문화의 어제와 오늘 (2) 헛기침으로 백 마디 말을 한다. (p71)
16	중3	비상(한) 2 언어문화의 어제와 오늘 (2) 헛기침으로 백 마디 말을 한다. (p72)
17	중3	천재(박) 2 담화와 협상 (1) 담화 상황에 맞게 듣고 말하기 (p68)
18	중3	천재(박) 2 담화와 협상 (1) 담화 상황에 맞게 듣고 말하기 (p76)
19	중3	천재(박) 2 담화와 협상 (1) 담화 상황에 맞게 듣고 말하기 (p78)
20	고1	천재교육(박영목 외) I. 대화와 협상 대화 (p16-17)
21	고1	미래엔(김동환 외) 화법과 작문 IV.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화법과 작문 (2)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화법의 과정과 실제 (p220)

중학교 1학년 대화 함축 관련 활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 맥락에 따라 같은 말이 다르게 쓰일 수 있음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정 대화 함축’의 측면에서 특정한 상황 맥락 하에서 사용되는 대화 함축을 제시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똥똥하다는 이유로 축구팀에 못 들어간 아이 · 2002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 진 우리나라 선수들 · 퀴즈 대회에서 결승전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최종 우승을 하지 못한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글에서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괜찮아”에 담긴 공감의 의미를 말해보자. (미래엔(윤), 4 갈등과 대화, p164) ■ “괜찮아.”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해 보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변에서 “괜찮아.”라는 말을 해 주고 싶은 대상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 보자. 2)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듣고 싶은 또 다른 말을 써 보자. 	

둘째, 상대의 처지를 잘 알고 발화를 해야 한다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전제하고 있으며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상대의 말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일상적 대화에서 상대의 발화 속에 담긴 함축을 통해 상대의 상황이나 감정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대의 감정을 읽고 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올바른 소통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화 1	대화 2
	<p>아들: 엄마, 저 피곤하고 졸려요</p> <p>엄마: 너 숙제부터 해야 돼!</p> <p>아들: 엄마는 나보다 숙제가 더 중요해요?</p> <p>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니?</p>	<p>아들: 엄마, 저 피곤하고 졸려요.</p> <p>엄마: 그래, 우리 영준이가 피곤하고 졸리는 구나.</p> <p>아들: 네. 낮에 친구들과 야구를 해서 그런가 봐요. 좀 쉬었다 숙제할게요.</p> <p>엄마: 그래, 어서 씻고 방에 들어가 쉬어라.</p>
<p>■ 다음 대화 중 바람직한 대화를 골라보고 대화할 때 공감하며 듣고 말하는 자세가 왜 필요한지 말해 보자. (신사고(민), 1 마음을 나누는 삶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p24)</p>		

셋째, 상황에 따라 대화의 격률이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삽화 등으로 재미있게 제시하고 있다.

	<p>남자: 혹시 우체국이 어디인지 아세요?</p> <p>여자: 네 알아요. 왜요?</p>
<p>■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천재(노) 5 더불어 살아가기 (2) 마음을 나누는 대화, p224)</p>	

넷째, 요청 화행을 함에 있어 단순히 지시적 의미만이 아닌 그 내면에 제시된 발화 함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주와 학자	공주와 광대
	공주: 달을 따다 주세요.	공주: 달을 따다 주세요.
	요.	요.

	<p>학자: 달은 너무 크고, 멀리 있기 때문에 따 올수가 없습니다. 공주: 달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밥을 먹지 않겠어요.</p>	<p>광대: 달은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큰가요? 공주: 와 고마워요! 광대: 공주님이 말씀하신 달이 동그랗고 손톱 만한 이 달이 맞죠?</p>
<p>■ 학자와 달리 광대가 공주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 (천재(노) 5 더불어 살아가기 (2) 마음을 나누는 대화, p225)</p>		

다섯째, 의도적 발화행위를 했으나 발화수반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는 상대의 수준이나 처지를 고려하여 말하지 못했음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발화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발화수반행위가 이루어짐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가</th> <th>나</th> </tr> </thead> <tbody> <tr> <td>남학생1 : 안녕?</td> <td>초등학생: 엄마, 해는</td> </tr> <tr> <td>남학생2 : 아우, 추워. 영수야, 넌 웬 꼬리가 그렇기 기니?</td> <td>왜 낮에만 나와? 엄마: 지구가 자전을 해서 그렇단다.</td> </tr> <tr> <td>남학생1 : 응? 난 꼬리 없는데</td> <td>초등학생: ?</td> </tr> </tbody> </table>	가	나	남학생1 : 안녕?	초등학생: 엄마, 해는	남학생2 : 아우, 추워. 영수야, 넌 웬 꼬리가 그렇기 기니?	왜 낮에만 나와? 엄마: 지구가 자전을 해서 그렇단다.	남학생1 : 응? 난 꼬리 없는데	초등학생: ?	
가	나									
남학생1 : 안녕?	초등학생: 엄마, 해는									
남학생2 : 아우, 추워. 영수야, 넌 웬 꼬리가 그렇기 기니?	왜 낮에만 나와? 엄마: 지구가 자전을 해서 그렇단다.									
남학생1 : 응? 난 꼬리 없는데	초등학생: ?									
<p>■ 두 사람의 대화를 살피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천재(박) 4 공부의 원리(2) 효율적인 의사소통, p193)</p>										

즉 중학교 1학년의 대화 함축 관련 활동에서는 상대와의 ‘공감’의 의미를 강조하고, 특정 어휘나 구문이 ‘상황 맥락’에 따라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지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화함축을 통해 상대의 발화에 담긴 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화함축의 측면에서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소통을 위해서는 대화함축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대화 함축 관련 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같은 말에 담긴 다른 함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화행위에 있어 상황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과는 다른 의도로 쓰이는 발화가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해 청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상황을 고려하여 대화 격률에 위배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가)	(나)
	남학생: 너희 집에서 저녁도 먹고 숙제도 하자. 여학생: 부모님이 안 계셔.	남학생: 너희 집에서 공연 연습하자. 여학생: 부모님이 계셔.
<p>■ 다음 두 대화를 보고 활동을 해 보자. 이러한 여학생의 답변이 “안 돼.”라고 말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교학사(남) 3. 말 속의 세상 (2) 말하기의 지혜, p152)</p>		

둘째, 상대의 기분이나 처지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화 함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혜로운 말하기,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와 연계하여 적절한 대화 함축이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발화에 담긴 함축을 적절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동혁: 토요일에 우리 일일 찾침 하는데, 너도 올래? 주희: 어, 난 엄마 일을 도와 드리기로 했어. 다른 일도 좀 있고. 동혁: 그래? 그럼 얼른 끝내고 와. 두 시야. 주희: 아니. 오후에도 계속 도와 드려야 하는데..... 동혁: 에이 참, 그럼 처음부터 그렇다고 하지. 주희: 아니, 난..... ■ 다음 동혁이와 주희의 대화를 보고 활동을 해 보자. (교학사(남) 3. 말 속의 세상, (2) 말하

기의 지혜, p154)

- (1) 동혁이가 주희의 말을 잘못 이해한 점을 써 보자.
- (2) 주희의 기분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자.
- (3) 상황을 고려한 바람직한 답화로 고쳐보자.

셋째, 우리의 언어문화에 따라 격률에 위배되는 발화가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상황 맥락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에 의해서도 대화 함축이 발생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말하기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시를 통해 우리 말문화 속에서 대화 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영구에서 온 줄리엣은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지만 가끔 한국어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얼마 전 낮에 혼자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의 친구가 잠깐 물건을 전하러 오신 적이 있었다.

줄리엣: 차 한 잔 드릴까요?

손님: 괜찮습니다.

줄리엣: 아, 네.

손님: ……

저녁에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시어머니: 손님한테 마실 것은 대접했겠지?

줄리엣: 손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아유, 괜찮다고 했다고 그러면 되니?

우리 집에 와서 물 한잔 못 마시고 갔다고 섭섭해 하더라.

■ 세대, 성, 문화 등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 언어 표현과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 다음 담화에서 줄리엣과 시어머니가 “괜찮다”는 말을 각각 다르게 이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담화 상황에 맞게 듣고 말하기 (천재(박)2 담화와 협상, p78)

넷째, 발화의 의미는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상황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사: (지각하며 들어오는 학생에게) 지금 몇 시니?

■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담화의 의미를 해석해 봅시다. (천재(박)2 담화와 협상, (1)

<p>학생: 열 시입니다. 교사: 뭐라고?</p>	<p>답화 상황에 맞게 듣고 말하기, p76) 담임선생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p>
---------------------------------	--

정리하자면 중학교 3학년 대화 함축 관련 활동들은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지만 이로 인해 말의 의미가 달리 해석됨을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의 활동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다문화인)’을 ‘사회 문화적 맥락’ 부분에 대한 예문으로 많이 활용하였다. 또한 담화에 대한 ‘이해, 인식, 태도’의 측면에서 ‘대화 함축’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으며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른 담화 평가와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등학교 활동의 경우는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고등학교 화법 교과서에서는 직접적으로 화용론의 개념과 용어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으며 중학교 교과서와는 달리 활동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서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여 학습자들이 그 개념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대화 함축 개념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실행해 보도록 하고 있다.

<p>가) 소영아, 넌 태어난 곳이 어디야? 난 대한민국 00시 00구 00동 00병원 4층 분 만실에서 태어났어. 나) 약속 시간 지났는데 왜 안 와? 어디야? 거의 다 왔어 금방 갈게 다) 형, 나 숙제 좀 도와줘. 엄마 심부름 하러 나가야 해. 라) 수진아 내일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탈까? 내일 학원 가야 하는데…… 학원 끝나고 공 원에 가도 될 것 같긴 해. 그런데 또 숙제도 있 어서…… 음……</p>	<p>■ 다음 상황을 보고, 협력의 원리에 대해 알 아보자. 활동1: 각 상황이 각각 협력의 원리에 어긋 나는지 이야기 해 보자 활동2: 대화 함축이 쓰인 상황이 있는지 찾 아보고, 대화 함축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미 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천재교육(박영 목 외) I 대화와 협상. p16~17)</p>
---	---

3.2. 교육의 실용성 및 타당성 검토

앞서 분석한 교과서 활동을 바탕으로 교육의 실용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직 국어교사 8인(중학교 4인, 고등학교 4인)에게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 교사는 다음과 같다.

〈표3〉 설문 참여 대상

대상자 기호	소속 지역 학교	성별	교사 경력
A	서울 중학교	여교사	4년
B	경기도 중학교	여교사	10년
C	경기도 중학교	여교사	11년
D	경기도 중학교	여교사	2년
E	경기도 고등학교	남교사	40년
F	서울 고등학교	여교사	13년
G	경기도 고등학교	남교사	3년
H	서울 고등학교	여교사	10년

설문 조사는 설문지 e-mail 전송 → 설문지 e-mail 회신 → 유선 인터뷰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어 시간 중 화법 혹은 말하기·듣기 교육 시간
- 화법 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 대화 함축 개념 관련하여 수업 시간에 언급하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학습 활동 및 교사용 지도서를 제시하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쳤는지(가르칠 예정인지)
- 대화 함축과 관련된 중·고등학교 교과서 학습 활동 총 21개를 제시한 후 어떠한 활동이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
- ‘공감적 소통’을 위한 대화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부분, 교과에서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

설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어 시간 중 화법 혹은 말하기·듣기 수업 운영 시간

대부분의 교사들이 국어 시간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여건 상 화법교육을 거

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중학교 여교사 D: 중학교의 경우 말하기 듣기 단원이 있는 경우(1학기에 주로 1~2단원 정도가 말하기·듣기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원칙적으로는 시수가 단원 당 1~2주 정도로 배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학사 일정 및 시험 등으로 주요한 단원만을 선정해서 가르칠 경우 화법 단원은 배제 1순위입니다.

고등학교 남교사 E: 고등학교의 경우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경우 주당 5시간을 가르치지만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집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여교사 H: 내신 평가에 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화법에 할애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교 여교사 F: 국어교과서에서 화법, 말하기, 듣기를 다루는 비중 자체가 적습니다. 또한, 교과연간계획을 구상할 때 교과 진도를 고려하여 단원을 선택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경우 거의 배제되는 단원(또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국어 수업시간 중 화법 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화법 교육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화법 교육에 있어 교사들은 공감하며 말하거나, 토론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이를 수업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중학교 여교사 A: 주로 공감하며 듣기, 독자를 고려하며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고등학교 남교사 G: 사회성 있는 원활한 의사소통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여교사 H: 학습 목표와 학습활동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실제 말하기 실습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여교사 A: 토론을 많이 해요. 책 소개하거나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 발표하기 등을 하고, 친구의 발표를 듣고 발표 내용 요약하기, 이 발표의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적기 등을 했어요. 공감적 말하기와 듣기는 별로 해본 적이 없네요.

중학교 여교사 D: 실제 학생들이 말하고 듣는 활동을 해 보는 경험을

강조하고, 이는 대부분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3) 대화 함축 개념 관련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중학교 경우 대부분이 대화 함축 개념 관련해서 언급하거나 수업하지 않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전원 수업 시간에 다루었다고 말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시험과 관련된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넘어간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고등학교 여교사 F: 고3 화법 수업에서 수능출제유형과 관련하여 다룹니다. 보통 출제 유형이 발화 상황의 맥락 이해라서 화법 이론의 개념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발화상황에서 발화의도 혹은 이해와 유추 차원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학생들의 화법영역에 대한 수요(?)는 적은 편인데 이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4) 학습 활동에 대한 지도 방식

교사들은 학습활동의 경우 기본적인 개념을 언급하면서 수업을 하고 실생활에서의 사례나 예시 등을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학교 여교사 B: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게 여러 개념을 언급하면서 가르치면서, 비슷한 사례로 한번쯤 겪어 보았을 상황을 발표하게 했어요.

중학교 여교사 C: 다양한 담화 상황의 적절한 표현을 위해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고등학교 남교사 G: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대화의 기술로써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있어요. 이는 매우 기본적인 상식인데, 교사들은 모든 학습자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간과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학습자의 개인적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중학교 여교사 A: 미래엔1의 ‘괜찮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장영희의 수필 중심으로 가르치고 학습 활동은 간단히 하고 넘어갔어요. 학생들이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을 스스로 설정하여 짝끼리 역할극을 하도록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되네요.

중학교 여교사 D :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요. 지도서에 나온 이론적인 내용이나 어려운 개념을 언급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거나, 이해를 더 도울 수 있는 다른 예시들을 언급하며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여교사 F : 고등학교 화법교과서의 경우 보통, 화법 이론의 개념과 용어를 우선적으로 배우고, 구체적인 상황제시로 이어지는데,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찾고, 바른 예로 고쳐 보는 활동 등을 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기도 하나, 거의 수능연계교재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이어서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5) 제시된 활동(앞의 자료 1번~21번) 중 수업 시간에 공감적 소통을 위한 대화 함축 교육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교사들이 선택한 자료들은 학습자들이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 현실에서 접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을 예로 든 대화 자료였다.

▪ 자료1

학년	출판사 및 단원명	학습목표	해당 활동 및 내용
중1	미래엔(윤) 4 갈등과 대화 (2) 괜찮아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말할 수 있다.	■ 이 글에서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괜찮아.”에 담긴 공감의 의미를 말해 보자.(p164)

중학교 여교사 B : ‘괜찮아’ 하는 말은 가장 흔히 쓰이는 말이면서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한 뜻을 함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남교사 G : 공감적 의사소통은 서로 의미를 협력하며 공감하는데 있다. 그에 적당한 학습활동은 1번 같다.

▪ 자료3

학년	출판사 및 단원명	학습목표	해당 활동 및 내용
중1	신사고(민) 1 마음올 나누는 삶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말한다.	■ 다음 대화 중 바람직한 대화를 골라 보고 대화할 때 공감하며 듣고 말하는 자세가 왜 필요한지 말해 보자.(p24)

고등학교 여교사 H : ‘공감적’인 의사소통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차이가 있다. ‘공감’의 측면에서 교육하는 것은 1, 3, 4, 5번이 적절하겠지만, 그 중 학습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접했을 범하고,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예시 자료를 사용한 것은 3번인 것 같으므로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

▪ 자료5

학년	출판사 및 단원명	학습목표	해당 활동 및 내용
중1	천재(노) 5 더불어 살아가기 (2) 마음을 나누는 대화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어요.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말할 수 있다.	■ 학자와 달리 광대가 공주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p225)

중학교 여교사 A : 이야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지문이고 문학적 감수성도 자극한다. ‘대화’의 목적이 ‘문제 해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공감’에 있음을 잘 드러내는 지문이다.

▪ 자료11

학년	출판사 및 단원명	학습목표	해당 활동 및 내용
중3	교회사(남) 3. 말 속의 세상 (2) 말하기의 지혜	대화의 상황에 어울리게 말하는 국어 생활을 한다.	■ 다음 만화에서 남학생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말해보자. 그리고 그 결과를 빈칸에 그려보자.(p150)

고등학교 남교사 E :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흔히 겪는 상황을 제시해서 실감난다. 학생들이 겪은 상황을 바탕으로 dialogue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 자료20

학년	출판사 및 단원명	학습목표	해당 활동 및 내용
3	천재 교육 (박영목)	대화의 개념, 목적, 원리를 이해한다.	■ 다음 상황을 보고, 협력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자.

	외) I. 대화와 협상 1. 대화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공감적 듣기를 할 수 있다. 다양한 의사소통 맥락을 고려하여 대화할 수 있다. 유머와 재담을 활용하여 대화할 수 있다.	활동1: 각 상황이 각각 협력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이야기 해 보자 활동2: 대화 함축이 쓰인 상황이 있는지 찾아보고, 대화 함축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	---	---

중학교 교과서 A : 다양한 의사소통 맥락을 고려하여 대화하기 위해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의 원리’를 명시적으로 가르치기에 좋은 자료인 것 같다. 이론적인 용어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문이 실제적이어서 잘 이해된다.

▪ 자료8, 18, 19

학년	출판사 및 단원명	학습목표	해당 활동 및 내용
중1	창비(이) 2 말과 글로 세상과 소통하기 (1) 마음과 말이 통하는 세상	효과적인 듣기, 말하기 계획을 세우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듣기, 말하기 과정을 점진, 조정하면서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략) 상대방은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길 바라는 것일까 등을 추측하며 상대방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 말을 효과적으로 잘 듣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면서 듣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 새겨듣는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파악하는 것을 뜻합니다.(p 77)
중3	천재(박) 2 담화와 협상 (1) 담화 상황에 맞게 듣고 말하기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맥락을 고려하여 담화 상황에 맞게 듣고 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담화의 의미를 해석해 봅시다.(p76) ■ 담임선생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3	천재(박) 2 담화와 협상 (1) 담화 상황에 맞게 듣고 말하기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맥락을 고려하여 담화 상황에 맞게 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성, 문화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언어 표현과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고 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답화에서 줄리엣과 시 어머니가 “괜찮다”는 말을 각각 다르게 이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p78)
--	--	------------	--

중학교 여교사 D : 말은 문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황이나 말하는 사람의 의도 등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쉬울 것 같다. 더불어 말을 표면적인 의미 그대로 이해했을 때의 부작용도 잘 설명하기에 좋을 것 같다.

6) 공감적 대화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

교사들은 공감적 소통을 위한 화법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고 교육의 필요성 역시 절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생활과 보다 밀접한 언어활동과 연계된 다각적인 학습자료 및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학교 여교사 B : 경청하는 태도 기르기, 적극적 듣기의 방법 및 시범 보이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남교사 E :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화법과 작문 교육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남교사 G : 교과서적인 부분보다는 실제 언어생활에 맞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새 학생들은 문법 파괴, 은어, 비속어 사용 등 올바르게 못한 언어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화법에 있어서 이론과 실체가 다르지 않고 같다는 의미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여교사 H : 학습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법한 내용으로 교과서 예시를 구성하고,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여교사 A : 우선 읽기 교육에 밀려서 화법 교육 자체를 잘 안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공감적 소통을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대화 상황을 써보고 역할극을 하고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실제로 공감적 대화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성 교육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소홀히 하고 넘어갔네요.

중학교 여교사 D: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으로는, 대화교육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둠활동을 활용하지만, 상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소수의 인원으로 고르게 발언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 진정한 대화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대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여교사 F: ‘공감적 소통을 위한 대화’는 학교 화법보다는 상담 쪽에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화법이 접근하는 ‘대화’는 (물론 실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론적 접근 혹은 이론적 분석으로 정의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일반적 의미 혹은 보통 수준의 한국인 사이에서) 공감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화의 원인이 대화의 원리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혹은 상황이나 맥락의 몰이해 혹은 이해 불가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예로 위의 제시된 대화 상황에서 대화(공감적 소통)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시트콤이나, 한국인과 외국인의 대화, 의도적으로 말뜻을 곡해한 상황 등 일반적 의미의 대화 상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공감적 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화법 교육 설계

4.1. 교육의 방향성

앞선 교과서 분석과 교사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대화 함축 관련 학습 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국어 교육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화 함축 관련 단원을 설계할 때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화 함축과 관련된 학습활동의 대부분은 단원의 길잡이 부분이나 단원의 마무리 부분에 산발적으로 삽화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에서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냥 재미로 읽고 넘어가는 만화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쉽다. 특히 중학교교과에서는 ‘대화 함축’이라는 용어 자체가 교과서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삽화는 에피소드를 다루듯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단원의 목표나 활동의 의도를 보면 이는 분명 ‘대화 함축’의 개념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하며,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실생활에 필요한 실

용적인 화법',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한 공감적 소통'을 위한 화법을 위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교사 역시 대화 함축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대화 함축 관련 내용을 가벼운 삽화로 분산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대화나 소통 관련 단원에서 유사한 여러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여 대화 함축의 개념을 공감, 소통과 연계시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화자의 입장에서 상대를 고려한 말하기 학습에 대한 활동을 보완해야 한다. 대화 함축 관련된 학습 활동은 대부분 말을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하거나 제시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학습자는 청자의 입장에서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화자가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바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상대에 대해 공감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교과서의 활동에서는 이것을 잘 반영하지 않고 있다. 청자의 입장에서의 학습도 중요하지만, 공감적 소통을 위한 화법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입장에서 상대를 고려하는 말하기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상황을 주고 파악하는 활동과 더불어 화자의 입장이 되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중학교 교과서에 관련 개념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학교급별 위계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중학교군의 학습 활동은 주로 현상을 파악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의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고, 고등학교 군에서 대화 함축의 의미와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을 직접 해보는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들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의 경우 화법을 선택과목으로 택하지 않은 경우 화법 수업을 거의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군에서도 '대화 함축'의 개념을 수준에 맞는 쉬운 말로 풀어서 제시해 주고,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을 해 보는 활동까지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사회 문화적 맥락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활동이 구안되어야 한다. 교과서에서 대화 함축 관련 예문에 외국인을 등장시켜, 상황 맥락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대화 함축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

화 가정이 늘어가는 현대 우리사회에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공감적 소통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이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단편적인 원인 분석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활동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사회 문화적 맥락과 관련된 대화 함축을 가르칠 경우 단편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에만 그치는 활동이 아니라,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 우리 말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들에게 그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실용적이며 구체적인 수업 방식(광고 만들기, 모둠 활동, 상황극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대화 함축 관련한 활동이 단순히 상황이나 대화 분석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 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한 후 의견을 듣거나, 답을 제시해 주거나 하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교사용 지도서에 관련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는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대화 함축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 방식을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대화 함축과 관련해서 상황을 제시해 주고 학생들이 상황극을 해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외국인과의 대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대화 함축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엮어서 UCC 제작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2. 교과서 활용 및 지도 방안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공감적 소통을 위한 대화 교육에 있어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대화 함축’의 개념이나 내용을 영역별 성취 기준, 내용 성취 기준에 적절히 잘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 역시 다양한 대화의 상황 맥락이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재미있게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의 현실에서 화법 교육(말하기·듣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사들은 제

대로 인지하고 있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적절한 교육이 경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 부담으로 인해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국어과 역시 수능 위주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화법 교육은 이론적인 논의에 대한 언급으로 간략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교과서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대화 함축 교육의 주요 이론적 개념과 그에 대한 실질적 응용 부분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비로소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구체적인 용어나 개념이 나타나지 않고 대화의 상황 분석이나 문제의 원인 파악하는 활동을 제시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화 함축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넘어간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화 함축의 이론적 개념이나 실질적인 응용 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의 목표나 취지에도 다소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화법의 교육 목적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라고 보았을 때 학교 현장에서 화법 교육 특히 일상 대화 상황에서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화 함축’과 같은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대화 함축’ 관련한 이론적 설명이나 응용 활동 등이 중학교 군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서에서 ‘대화 함축’을 다루고 있는 비율을 보면 중학교 1, 3학년에 몰려있고, 2학년에는 전혀 없다. 고등학교 군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내용을 중학교 2, 3학년 교과서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제시한다면 다소 입시 부담이 적은 중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은 대화 함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화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배려와 공감적 소통, 언어예절 부분인데 특히 상대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현행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대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 분석 활동에만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관련 삽화들이 말하기·듣기의 여러 단원에서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그 중요성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과서 대화 관련 단원에서 소단원으로 사회 문화적 맥락 및 상황맥락과 연계된 대화 함축

관련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화 함축에 대한 이해는 공감적 소통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화 함축은 상황과 대화 참여자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있지만 동일하게 해석되거나 공통분모가 많게 해석될수록 대화 참여자로 구성된 공동체는 유사한 공동체,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공감적 소통 공동체를 상상하며 대화 참여자가 대화 함축을 해석하는 능력도 대화 교육에서 다루어야 한다.

현재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대화 함축 관련한 지도 방안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제시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사용 지도서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흥미로운 다양한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 화법 교육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대화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분석 및 응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드라마나 영화의 대화 영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이 유머 코드와 결합되어 웃음을 유발하는 상황 아니면 이와 반대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 등을 나누어 제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대화 함축과 관련한 맥락 파악과 소통의 문제가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대화 함축과 관련하여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대화 상황을 모둠별로 구성해 보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보는 적극적인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보급과 맞물려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고에서는 화법교육의 한 방안으로서 ‘대화 함축’과 관련된 교육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과서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공감적 소통을 위한 대화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화법 교육을 위한 국어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교과서에서 대화 함축과 관련된 학습 활동을 분석하고, 현직 교사들의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공감적 소통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를

보다 실질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는 특히 화법 분야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교사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대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는 시시한 것이라는 일종의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화의 원리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 맥락에 대한 파악 등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배우지 못한다면 교과서에 나온 바와 같이 상대를 잘 이해 못하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 가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문화와는 다른 환경을 접해온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대화교육, 특히 대화 함축과 관련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학생들이 상상력을 키워가면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상정하여 상상 공동체를 설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상상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한 소통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공감하면서 함께 꿈을 키워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화법 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 5].
- 권순희(2001), 『대화 지도를 위한 ‘청자 지향적 관점’의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4), 『화법교육의 연구 현황과 전망』, 『국어교육연구』55권, 국어교육학회, 1-20.
- 권순희 외(2014), 『화법 용어 해설』, 박이정.
- 김경학(1983), 『국어의 이중주어 및 이중목적어 구문에 대한 고찰 : 기능 문법 및 화용론적 입장에서』, 『울산대학교 연구논문집』 14, 울산대학교, 165-179.
- 김민정(2009), 『미국 영화 대본에 나타난 대화 함축의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대(1978), 『한국어 화법 연구 : 그 보문자와 활용을 중심으로』, 『논문집』 2, 아주대학교, 117-132.
- 김순식(1992), 『전제와 화행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원(2014), 『2015국어과 교육과정 및 고재 개발 방안 : 통합형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과 과제』, 『청람어문교육』51, 청람어문교육학회, 7-37.
- 김태자(1989), 『간접화행과 대화적 함축』, 『국어학』18, 국어학회, 131-152.
- _____ (2002), 『관계적 사용과 대화적 함축』, 『국어교육』107, 한국어교육학회, 231-260.
- _____ (2010), 『국어학에서의 함의와 함축』, 『국어문학』48, 국어문학회, 23-39.
- 노심덕(1995), 『대화 함축의 조건과 형식화』, 『언어와 언어교육』10, 동아대학교 어학연구소, 313-332.
- 노은희(1993), 『상황맥락의 도입을 통한 말하기 지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바바라 A. 바우어 저, 박찬규 역(2012), 『이중언어 아이들의 도전: 이중언어

- 세대를 위한 언어교육 지침서』, 구름서재.
- 박성석(2013), 『관계 중심적 대화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 연구 : 초면 대화 상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2007), 『한국어화용론』, 박이정.
- 박용익(2010), 『대화분석론』, 백산서당.
- 박재현(2005), 『화법 내용 조직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설득 화법을 중심으로』, 『어문연구』3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09-534.
- 서미옥(2013), 『소설 대화문의 대화함축 양상 연구 : 주인석의 ‘광주로 가는 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혁(2000), 『말하기 교육 및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박이정.
- 윤평현(2008), 『국어 의미론』, 역락.
- 윤평현(2013), 『국어의미론 강의』, 역락.
- 이경화(2013), 『대화함축과 영어 교과서 대화문 연구 : 미국드라마 Friends 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범(2001), 『추론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 이원표(2001),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 이주섭(2001), 『상황맥락을 반영한 말하기·듣기 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1),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듣기·말하기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18,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33-56.
- _____ (2012), 『화법 교육에서 상호교섭성과 담화 관계 층위 수용 방향』, 『교육과학연구』14,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63-73.
- 이준희(2000), 『간접화행』, 역락.
- 이창덕 외(2006), 『삶과 화법』, 박이정.
- _____ (2010), 『화법교육론』, 역락.
- _____ (2013), 『국어 화법 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 『우리말교육현장연구』7, 우리말교육현장학회, 7-38.
- 임은설(2014), 『FLE 교재의 대화문 분석 : 함축의미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룡(2010),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임천택(2003), 「전제의 기능과 국어교육적 의미」, 『새국어교육』 66, 한국국어교육학회, 97-117.
- 임철성(1997), 「화법 교육의 방향 연구」, 『국어교육』 94, 한국국어교육연구회, 77-99.
- 전은주(1999), 『말하기·듣기 교육론』, 박이정.
- 정상섭(2006), 「공감적 화법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6a), 「공감적 의사소통의 본질 고찰」,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351-371.
- 조재운(2014), 「2012 개정 고시 국어과 교육과정 듣기·말하기 영역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새국어교육』 99, 한국국어교육학회, 209-234.
- 조정규(1997), 「대화함축 관련성 원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인(2014), 「설득 화법 집중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연구」, 『화법연구』 24, 한국화법학회, 271-310.
- 최태산·서미경(2014), 「감정스피치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학술대회지』 1, 한국인간발달학회, 121-128.
- 최현섭(2004), 「상생화용론 서설」, 『국어교육』 113, 한국어교육학회, 27-78.
- Sperber, D., Wilson, D. 저, 김태욱·이현호 역(1993), 『인지적 화용론』, 한신문화사.
- Stephen C., Levinson 저, 이익환·권경원 역(1992), 『화용론』, 한신문화사.

【국문초록】

대화 함축은 공감적 소통에 있어서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화행론적 개념이다. 의도적으로 협력의 원리를 깨뜨림으로써 청자가 함축된 의미를 추론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교과서 분석과 교사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대화 함축 관련 학습 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교육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화 함축 관련 단원을 설계하고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시한다. 대화나 소통 관련 단원에서 여러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여 대화 함축의 개념을 공감, 소통과 연계시켜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화자의 입장에서 상대를 고려한 말하기 학습에 대한 활동을 보완한다. 현재 교과서에서는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하거나 그 상황을 분석하게 하는 활동 위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청자 입장에서의 학습도 중요하지만, 공감적 소통을 위한 화법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입장에서 상대를 고려하는 말하기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중학교 교과서에 관련 개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한다. 교사들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화법이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단계에서 ‘대화 함축’의 개념을 쉬운 말로 풀어서 제시해주고, 실질적인 활동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 문화적 맥락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활동을 구안한다. 사회 문화적 맥락과 관련된 대화 함축을 가르칠 경우 단편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 우리말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들에게 그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활동이 추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실용적이며 구체적인 수업 방식을 제시한다. 현재 대화 함축 관련 활동은 분석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수업 방식을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화 함축에 대한 이해는 공감적 소통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국어 교육 이론을 제시하였다. 공감적 소통 공동체를 상상하며 대화 참

여자가 대화 함축을 해석하는 능력도 대화 교육에서 다루어야 한다.

주제어: 대화 함축, 공감적 소통 능력, 화법 교육, 사회 문화적 맥락, 공감적 소통 공동체, 교과서, 지도서

【Abstracts】

Ways of Enhancing Speech Education to Increase Empathic Communicative Ability

— Focused on the Education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

Kim Yune-jung & Kwon Soon-hee

Conversational implicature is a concept of speech-act theory that is applied with importance for empathic communication. By intentionally breaking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it allows the listeners to make inference of the implications from the speech, which can be observed frequently in our daily lives. Based on the textbooks and interviews with teachers, the learning activities related to conversational implicature were analyzed and the following guidelines for education was deduced.

First, chapters regarding conversational implicature need to be created and relevant content need to be introduced intensively. By presenting various practical cases in the chapters of conversation and communication, the concept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can be educated linked with the concept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Second, speech training supplementation to consider the listener from the speaker’s point of view. Current textbooks are composed of activities where the listeners are asked to grasp the intention of the speaker or to analyze a certain situation from the speaker’s viewpoint. Although learning from the position of the

listener is important, speech training to understand the counterparts from listeners in order to perform speech with empathic communication should proceed.

Third, relevant concept in middle school textbooks need to be complemented. As shown in the interviews with teachers, the subject of speech is not adopted as an optional subject in high school. Thus, the concept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needs to be presented with illustrations in an easier format during middle school.

Fourth, activities that intensively deal with social and cultural context should be devised. When conversational implicature of socio-cultural context is being educated, activities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the other culture and finding ways to help foreigners to understand certain situations despite the language barriers should be applied additionally instead of a simple situation analysis.

Fifth, interesting and practical, and specific education method should be presented. Currently, activities related to conversational implicature focus largely on analysis. Diverse ways of class teaching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textbooks or into guidelines for teachers.

Furthermore, we presented a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ory that the understanding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may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empathic communicative community. In the education, interpretation skills of the participants imagining empathic communicative community should be included.

Key words: conversational implicature, emphatic communication ability, speech education, socio-cultural context, community with emphatic communication, textbooks, teaching guides

이 논문은 2015년 9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0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